

동남합성, 고순도 계면활성제 양산

5월부터 NRE 양산체제 ... 12억원 투자 화학연구원과 공동개발

계면활성제 생산기업인 동남합성(대표 박준곤)은 세정력을 높인 고순도 계면활성제 NRE(Narrow-Range Ethoxylate)의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고 4월25일 밝혔다.

화학연구소와 공동으로 4년 동안 12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2001년 6월 개발에 성공한 NRE를 2002년 3월 시제품을 생산한데 이어 최근 양산에 들어갔다.

동남합성은 최근 수출에도 나서 캐나다 샴푸 생산기업인 제미니에 1430만달러 상당을 내보냈다. 또 다른 캐나다 및 미국기업과도 수출상담을 벌이고 있다.

동남합성의 NRE 생산기술은 세계 6번째로 지금까지는 독일, 미국, 일본 등 몇몇 선진기업에서만 보유하고 있다.

NRE는 기존의 일반 계면활성제와 달리 수산화칼륨 등 알칼리성의 균일성 촉매를 사용하지 않고 금속성분이 포함된 불균일성 촉매를 사용해 만들었다.

이에 따라 Ethylene Oxide의 밀집력이 커져 세정력이 뛰어나고 피부자극을 완화시켜 인체에 해롭지도 않다. 특히, 미반응 알콜량이 줄어들어 환경오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동남합성은 개발 완료단계에 있는 특수용 불소계 계면활성제도 2002년 하반기부터 생산할 예정이다.

동남합성은 1965년 설립됐으며 전세계 28개국에 계면활성제를 수출하고 있는데, 2001년 34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002년에는 4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032)450-3700

< Chemical Daily News 2002/ 04/ 30 >